

2021년 2월 28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Service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예수님과 빌라도 Jesus and Pilate
마가복음 Mark 15:1-15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And as soon as it was morning, the chief priests held a consultation with the elders and scribes and the whole council. And they bound Jesus and led him away and delivered him over to Pilate.
2.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And Pilate asked him, “Are you're the King of the Jews?” And he answered him, “You have said so.”
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And the chief priests accused him of many things.
4.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And Pilate again asked him, “Have you no answer to make? See how many charges they bring against you!”
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But Jesus made no further answer, so that Pilate was amazed.
6.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Now at the feast he used to release for them one prisoner for whom they asked.
7.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And among the rebels in prison, who had committed murder in the insurrection, there was a man called Barabbas.
8.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And the crowd came up and began to ask Pilate to do as he usually did for them.
9.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And he answered them, saying, “Do you want me to release for you're the King of the Jews?”
10.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앎이러라.
For he perceived that it was out of envy that the chief priests had delivered him up.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But the chief priests stirred up the crowd to have him release for them Barabbas instead.
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And Pilate again said to them, “Then what shall I do with the man you call the King of the Jews?”
13.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And they cried out again, “Crucify him!”
14.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And Pilate said to them, “Why? What evil has he done?” But they shouted all the

more, “Crucify him!”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So Pilate, wishing to satisfy the crowd, released for them Barabbas, and having scourged Jesus, he delivered him to be crucified.

샬롬!

지난 2월 17일에 우리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을 지냈습니다. 그 날부터 우리는 사순절(Lent)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로 제9일을 지낸 지금 우리는 사순절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1월부터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그 교회력과 주제가 맞물리는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임성빈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설교도 하셨습니다. 귀국하는 여정부터 앞으로의 모든 사역 과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중에 목사님께서 책 두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팬데믹을 당한 세상 중에 교회가 어떻게 나서야 할지를 연구한 책입니다. 대개가 우왕좌왕하는 중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총장으로 섬겼던 신학교가 재빨리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교회의 길을, 성도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도서관에 두고 여러분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 지역으로 파송된 총독입니다. 적어도 유대 지역에서 그는 로마를 대표하는 권력자입니다.

로마는 당시 이 세상의 대표였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조명하는 세상에서 로마는 최고 권력기구였습니다.

유대인의 자치기구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총독재판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그럴만한 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설령 죄가 있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전례에 따라 “사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백성들을 충동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굴복했습니다. 민란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책임이 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군대로 제압하면 그뿐이지만, 그래도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켜드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면 정치인으로서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정치적 판단은 결국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목상합니다. 유대 땅에서 볼 때 빌라도는 로마를 대표하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로마 앞에 서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로마는 온 세상을 대표하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마침내 온 세상 앞에 서신 것입니다.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And as soon as it was morning, the chief priests held a consultation with the elders and scribes and the whole council. And they bound Jesus and led him away and delivered him over to Pilate.

드디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희생제물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의 희생 제물로 오신 어린양 예수님을 지금 그가 “세상 권력”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형을 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의 아내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Besides, while he was sitting on the judgment seat, his wife sent word to him, “Have nothing to do with the righteous man, for I have suffered much because of him today in a dream.”

마태복음 Matthew 27:19

누가복음에 따르면 빌라도는 헤롯의 의견을 물었습니다(누가복음 24:6-12).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When Pilate heard this, he asked whether the man was a Galilean. And when he learned that he belonged to Herod’s jurisdiction, he sent him over to Herod, who was himself in Jerusalem at that time.

누가복음 23:6-7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And Herod with his soldiers treated him with contempt and mocked him. Then, arraying him in splendid clothig, he sent him back to Pilate. And Herod and Pilate became friends with each other that very day, for before this they had been at enmity with each other.

누가복음 Luke 23:11-12.

그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옳은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편했던 감정을 서로 씻었습니다. 이로써 이들 두 정치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입니다.

2.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And Pilate asked him, “Are you're the King of the Jews?” And he answered him, “You have said so.”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의 질문은 로마의 질문입니다. 로마의 질문은 세상의 질문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the Jews?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내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침묵을 계속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You have said so!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Simply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Anything beyond this comes from the evil one.
마태복음 Matthew 5:37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지경” 전체를 포함하여 이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Jesus answere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my servants would have been fighting, that I might not be delivered over to the Jews. But my kingdom is not from the world.”
요한복음 John 18:36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면, 예수님께서서는 “정치인”이셨을 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And the chief priests accused him of many things.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그들의 목적을 달성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이 나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If any of you has a dispute with another, dare he take it before the ungodly for judgment instead of before the saints?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6:1-11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책임자들이 스스로 종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로 정치하는 자들의 앞에 섰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법정에 세우다니!

이로써 분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로 뭉치고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불과합니다.

4.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And Pilate again asked him, “Have you no answer to make? See how many charges they bring against you!”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Have you no answer to make?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를 변호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거짓 증언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See how many charges they bring against you!

빌라도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그 자체로도 거짓 증언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그것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정치인 빌라도가 어찌 좋은 질문을 하겠습니까? 좋은 질문을 주님께 드렸더라면 그는 “영생의 길”을 얻었을 것입니다. 좋은 질문의 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한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사도행전 Acts 16:30

그랬더라면 그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But Jesus made no further answer, so that Pilate was amazed.**

말하자면 빌라도가 “왜 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드리려는 목적에서 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죄방면하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6.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Now at the feast he used to release for them one prisoner for whom they asked.**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 때 로마의 유대 총독은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민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월절 때 이스라엘이 그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사건을 고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사안이므로 로마 당국이 그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놓아 풀어드리는 것이 대단히 성경적인 메시지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And among the rebels in prison, who had committed murder in the insurrection, there was a man called Barabbas.**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란을 꾸렸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방면할 생각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더 시급한 것은 민란을 꾸밀 가능성이 있는 바라바를 붙들어 두고, 대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님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8.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And the crowd came up and began to ask Pilate to do as he usually did for them.**

무리들이 “전례”대로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유월절 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로마가 허락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9.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And he answered them, saying, "Do you want me to release for you're the King of the Jews?"

빌라도는 먼저 "유대인의 왕" 예수님 방면을 떠보았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요구보다는 빌라도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빌라도 같이 악한 자를 방면해 달라고 요청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10.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리라.

For he perceived that it was out of envy that the chief priests had delivered him up.

빌라도 생각에,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라고 여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 위험인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들 주위에 모여든 자들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로마정부에 위협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 내부의 의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한 그대로 대중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을 보호하다가 민란이 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But the chief priests stirred up the crowd to have him release for them Barabbas instead.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무리를 충동질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만 제거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좋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보다 이들 종교인들이 더욱 더 정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And Pilate again said to them, "Then what shall I do with the man you call the King of the Jews?"

이제 빌라도는 난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물은 것은, 그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것은 죄목입니다. 결국 빌라도도 인정한 죄목입니다. 십자가 위에 기록한 이 죄패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적 인물로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They cried out, “Away with him, away with him! Crucify him!” Pilate said to them, “Shall I crucify your King?” The chief priests answered, “We have no king but Caesar.”

요한복음 John 19:15

대제사장들의 반역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금 그들은 유대인의 민족정서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라니!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속 깊은 뜻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Pilate also wrote an inscription and put it on the cross. It read: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요한복음 John 19:19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정치적 죄목이 예수님의 영적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전: 빌라도의 의문	이후: 빌라도의 수궁
타이틀	신성모독/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함축된 위험	메시아 사칭	반란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어떤 행로를 거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13.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And they cried out again, “Crucify him!”

이제 무리들은 견잡을 수 없게 된 파도물결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Crucify him!

아예 형벌의 내용과 그 방법까지 지적했습니다. 모두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공회의 계획에서 난 그대로입니다.

14.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And Pilate said to them, "Why? What evil has he done?" But they shouted all the more, "Crucify him!"

여기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어쩐이냐?
Why?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What evil has he done?

이 두 가지 질문(왜?, 무엇을?)은 빌라도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형국에서 났습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도, 이들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행위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언들, 그리고 충동질 받은 군중들의 외침으로써 무죄한 자가 사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인민재판" 같은 형식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사결정이 확정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런 현상을 발견합니다.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시대에서!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So Pilate, wishing to satisfy the crowd, released for them Barabbas, and having scourged Jesus, he delivered him to be crucified.

빌라도는 결국 정치인입니다. 정의라는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보수"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가치를 지키는 보수. 그러나 그들이 정치인으로 남아 있는 한 그 가치는 바른 가치일 수가 없고, 그 가치를 지키는 행위가 정치인 한, 그들은 결국 "타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타협의 길을 갈 뿐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사명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그들에게서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 외에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니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 있습니다.

악을 대항하는 길은 "선"입니다. 선은 "살리는 일"이며,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다!" 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저들의 죄악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 앞에 선 불의는 감출 수가 없는 법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요한복음 John 1:5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빛은 그 빛의 존재를 감추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마태복음 Matthew 5:14

우리에게 빛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요한복음 John 1:9

우리가 빛의 증인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길은 무엇입니까?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처럼? 어둠 앞에 빛나는 빛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아닙니까?

세상은 교회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교회가 스스로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된 교회는 세상을 대하여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대변하는 빌라도가 어찌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